



기독일보



2024년 4월 19일 금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526호

“로잔, ‘성별은 남녀만’ 등 성경적 생명윤리 천명하길”

기독교생명윤리협, ‘로잔운동에 바라는 생명윤리질서’ 세미나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 이상원 교수)가 18일 오후 서울 한신인터빌리24빌딩 세미나실에서 ‘로잔운동에 바라는 생명윤리질서’라는 주제로 생명윤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 시간에는 이승구 석좌교수(함동신학대학원대학교)가 ‘로잔운동과 성경적 생명윤리 질서’, 신효성 박사(명지대학교 객원교수)가 ‘한국 로잔에 바라는 생명윤리 질서’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먼저 이승구 교수는 “로잔언약은 기본적으로 선교를 인간화 작업으로만 이해하려는 WCC적인 선교 이해에 동의하지 않는 복음주의자들이 한 선언이며 동시에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같이 강조한 것이라는 데에는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 그래서 1974년 로잔 회의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국제회의’라고 했었다”며 “로잔운동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꼽는다면 빌리 그라이엄과 존 스토틀이다. 두 사람이 하고자 한 것은 바로 세계복음화를 위해 WCC가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복음주의적 선교 운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빌리 그라이엄은 첫 번째 로잔대회 개최사에서 복음 전도와 관련한 두 가지 목적을 분명히 진술했다. 1) 세계복음화를 진척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며 2) 세계복음화의 연합 전선에 복음주의자들이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1974년 스위스 로잔에 150개국에서 온 2,400여 명의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적절한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었고, 이 문제에 대한 선언서를 만들어 선언한 것이 ‘현대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라고 언급이 되는 로잔언약이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국제회의는 세계의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모임”이라며 “WCC는 다양한 기독교 교단과 기독교단체들의 모임이며 이를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한다. 이에 비해서 로잔회의는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복음화를 염두에 두면서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다. 그러나 로잔언약이 교회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로잔언약은 선교의 기본적 기관을 교회라고 단언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런 정신을 유지하면서 1989년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차 로잔대회가 개최되었고 1910년 에딘버러에서 열렸던 선교사 대회를 기념하면서 100년 후에 2010년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제3차 로잔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제4차 로잔대회는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함께 모여서 논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로잔언약에서는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 모두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부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면서 선언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다. 1974년 이후 이 로잔언약에 근거하여 복음주의의 우파 주장도 나왔고 복음주의의 좌파의 주장도 나왔으며, 아주 복잡한 관계가 복음주의 안에 형성되었다는 것이 역사적 현실이다. 이는 한국복음주의권 안에서 그대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했다.

이어 “로잔언약을 이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나타났던 자유주의 방식으로 로잔언약을 이해하는 것은 복음주의의 운동으로서의 로잔언약을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이전에 사회복음주의와 같은 방식으로 로잔언약을 이해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더구나 해방신학과 같은 방식으로 로잔 언약을 이해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오늘날은 1974년 로잔언약이 선언된 후에 더 복잡한 세상이 되었고, 논의도 더 복잡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2024년에 열리는 송도에서의 모임을 비롯해서 로잔운동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이를 위해 몇 가지 명제를 제시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첫째, 세계 복음화에 대한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복음화는 기본적으로 ‘천국 복음을 선언하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진정으로 천국 복음을 믿고 천국에 참여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넷째, 복음화는 간접적으로 사회를 변화하는 부산물을 낳는다. 다섯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참으로 믿는 가운데서 진행되는 것이 로잔운동이며 여섯째, 복음주의적 성경관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복음전도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로잔운동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복음에 의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여러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하나님을 아는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데 생명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일단 은총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생명을 존중하는 데로 나아가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생명 윤리 질서에 충실해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세 가지 측면에서 로잔 대회에서 뚜렷한 입장을 명확히 선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첫째로, 배아를 비롯한 모든 단계의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입장을 온 세상에 명확히 선언하여 주길 바란다. 로잔운동이 복음주의 기독교 운동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니 명확히 성경적인 입장에서 우리들은 배아를 비롯한 모든 단계의 인간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이 교수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 질서를 반영하는 성(性)에 대한 이해가 개인과 가정과 사회 속에 나타나게 해야 한다고 선언해 주길 바란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을 분명히 하며, 그것 이외의 성을 인정하려는 시도가 그쳐야 한다고 명확히 선언해 주시길 바란다”며 “셋째로, 각국에서 혹은 시행되고 있거나 한국의 경우처럼 일부 사회 세력이 입법하려고 하는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이 법으로 제정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로잔운동이 명확히 선언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한국의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바를 이해하나 한국교회가 바라는 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만일 그렇게 한다면 로잔운동에 대한 실망이 크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부디 바라기는 아주 명확한 성경적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생명윤리를 천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18일 오후 한신인터빌리24빌딩 세미나실에서 생명윤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승연 기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18일 오후 한신인터빌리24빌딩 세미나실에서 생명윤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승연 기자

이어서 신효성 박사는 “국제법은 우리 삶 속에 작은 부분까지 적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여권으로 일본이나 태국, 홍콩 등 다른 나라에 바로 입국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에 있는 친구들과 국제전화를 하거나 SNS를 할 수 있는 것, 외국에 있는 가족에게 가까운 동네은행에서 송금할 수 있는 것도 국제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라며 “국제법의 범원은 조약이다. 조약인 비엔나협약에서 조약의 의미를 첫 번째 국가 간에 체결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작성되어야 하고, 세 번째로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협정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제법이란 국가나 국가가 나태를 지원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국제적인 의무가 없음을 재확인한 제네바 합의 선언은 2020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World Health Assembly 대면회의 전에 이 협약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이 불가피하게 취소되었다. 이후 10월 22일 미국,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우간다의 공동주최로 워싱턴 D.C.에서 온라인 서명식이 진행됐고 2020년 12월 캘리 크래프트 유엔 미국대사가 유엔 총회에 이 협약을 제출했다”며 “제네바 합의 선언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과 여성의 인권은 모든 인권과 자유의 일부로서 양도할 수 없고, 통합적이고, 분리될 수 없는 여성의 인권을 재확인하고 있다. 우리 헌법도 제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고 했다. 이어서 신효성 박사는 “국제법은 우리 삶 속에 작은 부분까지 적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여권으로 일본이나 태국, 홍콩 등 다른 나라에 바로 입국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에 있는 친구들과 국제전화를 하거나 SNS를 할 수 있는 것, 외국에 있는 가족에게 가까운 동네은행에서 송금할 수 있는 것도 국제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라며 “국제법의 범원은 조약이다. 조약인 비엔나협약에서 조약의 의미를 첫 번째 국가 간에 체결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작성되어야 하고, 세 번째로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협정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제법이란 국가나 국가가 나태를 지원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국제적인 의무가 없음을 재확인한 제네바 합의 선언은 2020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World Health Assembly 대면회의 전에 이 협약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이 불가피하게 취소되었다. 이후 10월 22일 미국,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우간다의 공동주최로 워싱턴 D.C.에서 온라인 서명식이 진행됐고 2020년 12월 캘리 크래프트 유엔 미국대사가 유엔 총회에 이 협약을 제출했다”며 “제네바 합의 선언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과 여성의 인권은 모든 인권과 자유의 일부로서 양도할 수 없고, 통합적이고, 분리될 수 없는 여성의 인권을 재확인하고 있다. 우리 헌법도 제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고 했다. 이어서 신효성 박사는 “국제법은 우리 삶 속에 작은 부분까지 적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여권으로 일본이나 태국, 홍콩 등 다른 나라에 바로 입국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에 있는 친구들과 국제전화를 하거나 SNS를 할 수 있는 것, 외국에 있는 가족에게 가까운 동네은행에서 송금할 수 있는 것도 국제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라며 “국제법의 범원은 조약이다. 조약인 비엔나협약에서 조약의 의미를 첫 번째 국가 간에 체결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작성되어야 하고, 세 번째로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협정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한국의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바를 이해하나 한국교회가 바라는 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만일 그렇게 한다면 로잔운동에 대한 실망이 크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부디 바라기는 아주 명확한 성경적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생명윤리를 천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승구 교수



신효성 박사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헌법에도 일치하는 선언 내용”이라고 했다.

신 박사는 “인간은 천부인권인 생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여성을 지원하고 부부에게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최고의 기회를 제공할 책무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제네바 합의 선언에는 낙태가 가족 계획의 수단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도 1978년 정부의 가족계획 사업 목표량을 보면 루프, 난관수술, 피임약, 콘돔, 낙태수술, 정관수술 목표량으로 정하여 낙태를 피임의 하나의 방법으로 간주하여 목표량을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낙태와 관련된 모든 조치나 변경 사항은 국가입법절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차원에서만 결정될 수 있다고 강조하여, 헌법의 효력범위는 국가와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국제법상 불간섭원칙이 발동되어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만 결정될 수 있다고 하여 국제법상 불간섭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세대의 신실함이란 세대의 진리와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 특히 남자와 여자로서의 위치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모든 이들이 기쁜 마음과 감사와 찬양과 온전한 충성을 돌려야 한다는 내슈빌 선언은 내슈빌에서 개최된 남침례회 윤리와 종교자유위원회 총회에서 나온 성경적 남성과 여성위원회에서 2017년 6월 29일 공개한 선언”이라며 “내슈빌 선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연합한 혼인 관계 이외의 성관계를 정당화 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성관계는 결혼생활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언한다. 혼인관계 이외의 성관계는 부도덕한 것으로서 비윤리적이고, 종교적으로도 옳지 않은 것으로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과 동일한 견해”라고 했다.

신 박사는 “내슈빌 선언은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성별의 차이와 구별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차이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불평등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선언한다. 헌법상의 양성평등 원칙과 실

정법상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목적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타락의 결과라든지 극복되어야 할 비극이라는 것을 거부한다고 선언한다”며 “내슈빌 선언은 남성과 여성의 성별 이분법 원칙에 근거하고 있고, 남성과 여성의 생식구조의 차이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자아개념을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설계임을 선언하고 있다. 생식기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생물학적 성별을 받아들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동성애 또는 트랜스젠더로서의 자아개념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목적과 구속사역에 일치한다는 것을 거부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성적 인 범죄에 대한 종교적인 용서와 회복의 과정을 통하여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슈빌 선언은 동성애에 대한 성적 매력에 하나님의 원래 피조물에 대한 자연스러운 선의의 한 부분이라거나 또는 인간을 복음의 소망 밖에 두는 것을 거부한다. 동성애의 부도덕함이나 트랜스젠더주의를 인정하는 것이 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함으로써 종교적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끝으로 신 박사는 “임신 2주부터 임신 4주에 이르는 배아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지만, 자궁에 착상한 임신 4주부터 출산 전까지의 태아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헌법의 낙태죄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어떠한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국내법 실정에 한국 정부가 제네바 합의 선언에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성경에 근거하여 결혼과 임신에 대하여 바로 알고, 동성애와 일부다처제 등의 관계성을 부인하며,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창조의 자연스러운 신의 일부임을 부인해 동성애적 부도덕이나 트랜스젠더리즘을 용인하는 죄를 선언한 내슈빌 선언을 계승 발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편 세미나는 예배, 헌법, 발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박윤영 목사(소망의교회)의 인도로 드러졌으며 백선영 목사(송파가나교회)가 대표기도를 드렸다. 이어 이상원 교수가 예루살렘 회기가 주는 교훈(사도행전 15:28-2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또 이명진 원장(명예이비인후과, 상임운영위원장)이 환영사를 전했다. 최승연 기자



「서울-동탄 GTX-A 개통완료!」

동탄, GTX로 감탄하다!

힐스테이트 동탄 르센텀 오피스텔

GTX-A

개통완료

(수서-동탄 구간)

선남숲

영구조망

(일부호실 제외)

선착순 특별혜택

1833-3008

hillstate-le-centum.co.kr | KB부동산 | pine grove | 현대엔지니어링

HILLSTATE